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20년 5월

통일부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 삭제, 대표 직책 표기
ex)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위원장'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개황·동향 제목·동향 개요·주간 보도일지·주요인물 동정: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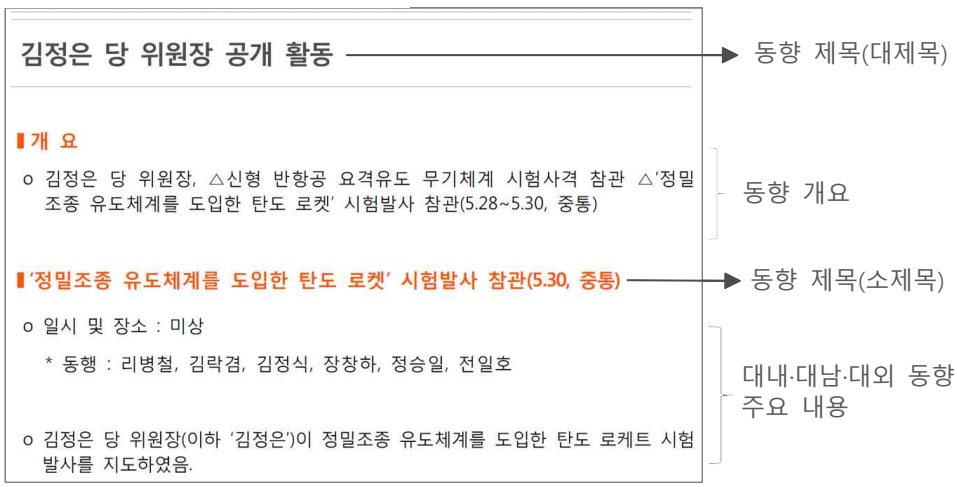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①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페허(폐허)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나. 북한 주요 인물 직책 표기

o 북한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되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직책만 표기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개황 1

대내동향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5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8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10
박봉주 당 부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사 14
'당 제7차대회(2016년 5월)'의 역사적 의의 강조 15
순천린비료공장 준공, '사회주의 강국건설 돌격로 개척' 강조 17
인민경제 선행부분 생산 정상화 강조 19
알곡생산 목표 수행 위한 모내기 독려 21
'군민대단결로 정면돌파전 승리' 강조 23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 강조 25
건전한 언어생활 강조 26
국산화 실현 사업 강조 27
긍정적 모범 사례 따라배우기를 통한 긍정감화교양 사업 강조 29
청년 사상교양 강화 강조 30
생물다양성 보호 적극 대처 강조 31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명절·휴식일로 지정 33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령, 군 승진인사 단행 … 34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완공 의의 강조 35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채택 '재자원화법' 해설 37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사상문화진지' 구축 강조 38
인민경제 전역의 연대적 혁신 촉구 39
유네스코민족위원회, 백두산지역 세계지질공원 등록 추진 41

Contents

대남동향

통일부 '남북관계발전 시행 계획' 비난 ····· 42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 우리 군 합동군사연습 비난 43
우리 군 군사훈련 비난 ····· 44
'6.25 70주년 기념사업' 비난 ····· 45
통일연구원 발간 '북한인권백서' 관련 비난 ····· 46
5.18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성토문 발표 ····· 47
우리 군 기강문제 비난 ····· 48

대외동향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념메달·증서 전달 ····· 49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축하 구두 친서' 전달 · 50
김정은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 ····· 51
북-태국 수교 45주년 기념 친선 강조 ····· 5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친서' 화답 53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담화 ····· 54
일본 군사력 증강 비난 ····· 5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총련'에 결성 65주년 축전 56
'총련' 결성 65주년 계기 축하·격려 ····· 57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중국 지지입장 발표 ··· 58

주요인물 동정 ····· 59

월간 보도일지 ····· 62

이달의 약사 ····· 72

개황

대내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 및 준공테이프 커팅(5.2, 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주재(5.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광명성제염소를 현지에서 요해(5.11,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황해남도물길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해주농기계공장 △류경생활용품공장 등 황해남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

- 박봉주 당 부위원장, 청천강-평남관개물길 건설장 현지 요해(5.3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 김재룡 내각 총리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철공장 △어랑천3호발전소 건설장 △명간화학공장 △청진화력발전소 △경성애자공장 △경성도자기공장 △중평남새온실농장 등 함경북도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5.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재룡 내각 총리가 △안석간석지 건설장 △귀성제염소를 현지에서 요해(5.9, 중앙통신)

- 김재룡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준공 정형 등을 현지에서 요해(5.1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재룡 내각 총리가 △단천항 △단천제련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고원탄광 △수동탄광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전극공장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흥남제약공장△고원군 상산협동농장 등 함경남도 여러 부문을 현지 요해(5.19,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재룡 내각 총리가 △남포항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평양지하철도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금성트랙터종합공장 등을 현지 요해(5.23,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재룡 내각 총리가 △황해북도 미루벌 물길 △곡산군 송림협동농장 △신계군 신흥협동농장 △신계 미루벌 토지개량사업소를 현지에서 요해(5.31,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당 부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사(5.2, 중앙통신·중앙방송)**

◆ **'당 제7차대회(2016년 5월)'의 역사적 의의 강조(5.6,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 **순천린비료공장 준공, '사회주의 강국건설 돌격로 개척' 강조(5.6, 노동신문)**

◆ **인민경제 선행부분 생산 정상화 강조(5.7, 노동신문)**

◆ **알곡생산 목표 수행 위한 모내기 독려(5.11, 노동신문 사설)**

◆ **'군민대단결로 정면돌파전 승리' 강조(5.14, 노동신문·중앙방송)**

◆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 강조(5.18, 노동신문)**

◆ **건전한 언어생활 강조(5.19, 노동신문)**

- '외래어·잡탕말'이 아닌 '민족어·평양문화어' 사용 등 건전한 언어생활 강조

◆ **국산화 실현 사업 강조(5.20, 노동신문)**

- 국산화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사업',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 강조

◆ **긍정적 모범 사례 따라배우기를 통한 긍정감화교양 사업 강조(5.21, 노동신문)**

◆ **청년 사상교양 강화 강조(5.22, 노동신문)**

-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수분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 강화 강조

◆ **생물다양성 보호 적극 대처 강조(5.22, 노동신문)**

-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생물다양성 보호 적극 대처 와 생물다양성협약 체약국의 의무이행 강조

◆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명절·휴식일로 지정(5.23,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을 명절·휴식일로 지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령, 군 승진인사 단행(5.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명령 제0015호,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 발표

◆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완공 의의 강조(5.23,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완공은 '충성의 노력적 선물,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 강조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채택 '재자원화법' 해설(5.25, 중앙통신)**

◆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사상문화진지' 구축 강조(5.26, 노동신문)**

◆ **인민경제 전역의 연대적 혁신 촉구(5.26, 노동신문)**

◆ **유네스코민족위원회, 백두산지역 세계지질공원 등록 추진(5.31, 중앙통신)**

대남동향

◆ **통일부 '남북관계발전 시행 계획' 비난(5.1, 우리민족끼리)**

◆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 우리 군 합동군사연습 비난(5.8,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우리 군 군사훈련 비난(5.12, 우리민족끼리)**

- 8월 '림팩' 합동군사훈련 참가 결정 등 우리 군 군사훈련 비난

◆ **'6.25 70주년 기념사업' 비난(5.13, 우리민족끼리)**

◆ **통일연구원 발간 '북한인권백서' 관련 비난(5.15, 우리민족끼리)**

◆ **5.18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성토문 발표(5.18, 우리민족끼리)**

◆ **우리 군 기강문제 비난(5.20, 우리민족끼리)**

대외동향

◆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념메달·증서 전달(5.6,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국전쟁승리 75주년' 기념메달·증서 전달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축하 구두 친서' 전달(5.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사업 성과 축하 구두 친서' 전달

◆ **김정은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5.9, 노동신문)**

- 김정은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절' 75주년 축전

◆ **북-태국 수교 45주년 기념 친선 강조(5.9, 노동신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친서' 화답(5.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담화(5.19, 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소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 제하 담화 발표

◆ **일본 군사력 증강 비난(5.20, 중앙통신)**

- 항공자위대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 보유계획 등 일본 군사력 증강 비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총련'에 결성 65주년 축전(5.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앞으로 결성 65주년 축전 발송

◆ **'총련' 결성 65주년 계기 축하·격려(5.25, 중앙통신·노동신문)**

- '총련' 결성 65주년 계기 '정다운 한 식솔·미더운 해외혁명동지' 축하·격려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중국 지지입장 발표(5.30, 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지지입장 발표

대내동향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 및 준공테이프 커팅(5.2, 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o 일자 및 장소: 5.1, 순천인비료공장

- 수행: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김덕훈·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여정·조용원 당 제1부부장

o 주체비료 생산기지로 일떠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 5월 1일에 진행되였음. 김정은 위워장이 준공식에 참석하였음.

o 순천인비료공장은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고 생산에서도 건축물에서도 생태환경 보호에서도 완벽한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임.

o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의 승전포성을 울린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은 당 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받들고 자력갱생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나갈 때 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떨쳐갈 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음.

o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장에 나왔음.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음.

- 박봉주 당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두리에 뭉쳐 정면돌파전의 투쟁 열의를 고조시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필승의 신심 드높이 나아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 테이프를 끊었음. 김정은 위원장은 환호를 올리는 건설자들과 군중에게 손저어 답례를 보내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완공된 공장의 생산공정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원료가공공정, 황린생산공정, 린안생산공정, 제품포장공정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았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린비료공장은 당 정책 절대 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전체 건설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련관 단위들과 협동하여 순천린비료공장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면서 인재육성은 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린비료공장의 완공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이룩한 첫 성과이며 국가의 화학공업을 한 계단 도약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이 성과를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전역에서 자력부강, 저력번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할데 대하여 말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린비료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통합생산체계를 완비하며 생산공정을 안정하게 운영할 데 대한 문제, 환경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비료공장들을 전반적으로 개건·현대화하며 새로운 화학공업 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화학공업을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었음.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의 주재(5.24, 중앙통신·중앙방송)

o 일자 및 장소: 미상

- 수행: 미언급

o 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올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이 확대회의를 지도하였음.
-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를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당 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하였음.

o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관건적인 시기에 조성된 대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력과 전쟁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필수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자주권을 철벽으로 보위하며 적대세력들의 지속적인 크고 작은 군사적 위협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전반적 공화국 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군사적 대책들과 조직정치적 대책들이 연구·토의되였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였음.

o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반적 공화국무력의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하여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o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혁명적 군사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 과업들이 강조되였음.

-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였음.

-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음.

o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하고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음.

- 리병철 동지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였음.

o 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음.

-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올해를 정면돌파전의 승리의 첫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격려하며 주요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결정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군사, 정치,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기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공화국 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들과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 개편안에 관한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데 대한 명령서,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를 비롯한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 서명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이 조직·지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는 당의 군 건설 사상과 전략적 구상대로 혁명적 무장력을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군사력으로 추동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전환점으로 됨.

박봉주 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개 요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광명성제염소를 현지에서 요해(5.11,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함경남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능력 확장공사에 총력을 집중하고 설비집중보수를 질적으로 하여 맡겨진 비료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며 여러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강조하였음.

o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박봉주는 염화비닐생산 등을 늘이고 중요대상 설비생산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로동조건, 생활조건 보장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정신으로 과학기술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경영관리를 짜고들어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데 대하여 강조되였음.

o 광명성제염소에 건설한 새로운 소금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소금생산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음.

▌개 요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황해남도물길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해주농기계공장 △류경생활용품공장 등 황해남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5.25, 중앙방송·중앙통신)

▌주요 내용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황해남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황해남도물길을 돌아보면서 물길관리를 잘하여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대줄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흐뭇한 밀작황을 마련해가고 있는 봉천군 신답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음.

o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며 필요한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해주농기계공장 개건현대화정형을 료해하고 농기계생산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새땅찾기와 관개용수, 농기계보장 등 알곡생산을 늘이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o 이에 앞서 류경생활용품공장에 새로 꾸린 생산공정을 현지 요해하였음.

▌개 요

o 박봉주 당부위원장이 청천강-평남관개물길건설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5.30,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청천강-평남관개물길 언제건설장과 남천강잠관공사장, 연풍1,2호물길굴공사장을 돌아보면서 건설진행정형과 공사를 제때에 끝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o 현지에서 설비와 로력,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며 작업능률을 보다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하였음.

김재룡 내각 총리 현지 요해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철공장 △어랑천3호발전소 건설장 △명간화학공장 △청진화력발전소 △경성애자공장 △경성도자기공장 △중평남새온실농장 등 함경북도 여러 단위를 현지 요해(5.4,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김재룡 내각총리가 함경북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산소분리기설치공사와 부유예열식산소열법용광로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대책하였음.

o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철공장에서 철광석, 철정광을 비롯한 원료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워 주체철, 합금철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언급하였음.

o 어랑천3호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면서 팔향언제를 훌륭히 일떠세운 그 기세로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음.

o 명간화학공장, 청진화력발전소, 경성애자공장, 경성도자기공장, 중평남새온실농장 등 여러 단위의 생산정형을 료해하면서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활성화의 지름길을 열어제낄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하여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련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안석간석지 건설장 △귀성제염소를 현지에서 요해(5.9,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안석간석지 건설장과 귀성제염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안석간석지 제방을 돌아보면서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하여 주었으며 내부망공사를 따라 세우고 앞선 공법과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원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강조하였음.

o 귀성제염소에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인재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등 단위의 내적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경제적 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원료, 설비, 자재보장 대책들이 강구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준공 정형 등을 현지에서 요해 (5.10,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10일 2단계 공사가 완공된 황해남도물길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음.

o 황해남도물길 1단계 공사에 이어 2단계 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청단군, 봉천군, 강령군, 옹진군과 새로 개간되는 룡매도 간석지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되였으며 도의 알곡생산을 늘일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음.

o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 황해남도, 물길공사중앙지휘부, 관계부문 일군들이 함께 돌아보았음.

o 봉천호언제와 주답굴, 한촌1잠관 등을 돌아보면서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준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큰 보폭을 내짚은 물길 건설자들을 축하해 주었음.

o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황해남도물길공사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새로운 대상공사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현지 료해 과정에 물길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짜고 들어 도안의 농업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강구되였음.

o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전선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으로 정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관개체계가 큰 은을 내도록 하며 과학농사열풍,

o 다수확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단천항 △단천제련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고원탄광 △수동탄광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전극공장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흥남제약공장△고원군 상산협동농장 등 함경남도 여러 부문을 현지 요해(5.19, 중앙방송·중앙통신)

▌주요 내용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단천항과 단천제련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고원탄광, 수동탄광을 돌아보면서 현행생산을 늘이고 철길공사, 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대책하였음.

o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전극공장에서 김재룡 내각총리는 대중의 정신력과 생산 잠재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대상설비, 제품의 질과 량을 철저히 보장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국가과학원 함흥분원과 흥남제약공장 등 여러 단위를 돌아보면서 과학연구사업에 계속 힘을 넣으며 의약품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완비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좋은 밀작황을 마련해가고 있는 고원군 상산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련관단위들에서 석탄과 설비, 자재 등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강구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남포항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평양지하철도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금성트랙터종합공장 등을 현지 요해(5.23, 중앙방송·중앙통신)

▌주요 내용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남포항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전염병방역사업이 장기화되는 형세하에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검사검역체계를 더욱 완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소독사업을 철저히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하며 소독약공급을 짜고 들어 방역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음.

o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해주었으며 일군들이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 창건 75돐을 알곡증산성과로 맞이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한편 평양지하철도의 운영실태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새 제품개발,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의 개건현대화정형을 료해하였음.

▌개 요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황해북도 미루벌 물길 △곡산군 송림협동농장 △신계군 신흥협동농장 △신계 미루벌 토지개량사업소를 현지에서 요해(5.31,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5.31, 중앙통신·중앙방송)

o 김재룡 내각 총리가 황해북도의 미루벌물길과 곡산군, 신계군의 모내기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미루벌 물길을 돌아보면서 물길관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며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물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곡산군 송림협동농장과 신계군 신흥협동농장의 모내기정형을 료해한 김재룡은 생육기일이 짧은 벼품종들을 받아들이며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방법론 있게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적극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신계미루벌토지개량사업소에서 미루벌의 토양학적 특성에 맞는 농작물들을 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협의하였음.

박봉주 당 부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사

▌주요 내용(5.2, 중앙통신·중앙방송)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음.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은 순천린비료공장의 준공이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이룩하려는 영웅적 로동계급의 혁명적 기상과 우리 국가의 막강한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며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일대 경사로 된다는데 대하여 말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생산에서 절실히 필요한 고농도 린안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크게 건설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한 로력절약형 기업체로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음.

o 그는 당정책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화한 건설자, 과학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을 벌려 방대한 공사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고 린비료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리식으로 해결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데 대하여 말하였음.

o 우리나라 비료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전선전반을 추동하는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의 완공은 우리 당의 정면돌파사상,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억세게 나아갈 때 우리의 투쟁목표들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 주고 있다고 그는 언명하였음.

o 박봉주 당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정면돌파전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자력갱생의 훌륭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필승의 신심 드높이 힘차게 나아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당 제7차대회(2016년 5월)’의 역사적 의의 강조

▌개 요

o ‘당 제7차대회(2016년 5월)’의 역사적 의의 강조(5.6,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o 제목: <우리 혁명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주요 내용

o 당 제7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4년이 되었음. 2016년 5월에 있은 당 제7차 대회는 우리 당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의의 깊은 대회였음.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이 김정은 동지를 당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음.

o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력사적 진군을 올려세우고 사회주의강국 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진로를 명시한데 당 제7차 대회가 가지는 력사적 의의가 있음.

o 지난 4년간은 국가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과 전진의 련속이였음. 최근 년간에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주체무기들이 개발·완성되여 국가의 위상이 만천하에 과시되였음.

o 지난 4년간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인민의 투쟁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된 나날이였음. 인민은 당 제7차 대회의 있은 2016년에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였고 2017년에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사에 리정표를 새기였으며 2018년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틀어쥐고 2019년을 자력갱생의 위력이 총폭발된 승리의 해로 빛내이였음.

o 특히 지난 해에 이룩한 성과는 당 제7차 대회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과시로 아로새겨져 있음. 삼지연시가 산간의 리상도시로 솟구쳐 오르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섰으며 농업 전선에서의 다수확 성과가 이룩되고 경공업 부문에서 명제품이 쏟아져 나와 발전 잠재력이 과시되였음.

o 정면돌파전이 시작된 올해에 순천린비료공장이 일떠서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진척되고 있는 현실은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인민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당과 국가 활동의 모든 사업을 당 제7차 대회의 과업관철에로 지향시키고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왔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중요 회의들에서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여 혁명의 참모부로서 당의 령도적 권위를

높이도록 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임.

o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서고 심야강행군으로 강국 건설 전역들을 찾았으며 대중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길을 지펴준 김정은 위원장의 불면불휴의 령도에 의하며 민족사에 특기한 대사변들이 이룩되였음.

o 우리 인민은 김정은 위원장의 두리에 뭉쳐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상과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 나갈 것임.

순천린비료공장 준공, '사회주의 강국건설 돌격로 개척' 강조

▌주요 내용(5.6, 노동신문)

o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4년이 되였음.

o 반만년민족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욱을 새긴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차 넘치는 것은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설계도 따라 용진해 나가는 길에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임.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음.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천만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o 주체105(2016)년 5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의의 깊은 대회였음.

o 대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간 의사와 념원을 담아 김정은 위원장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

o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력사적 진군을 과학적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 세우고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데 당 제7차대회가 가지는 력사적 의의가 있음.

o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로선은 지난 기간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뚜렷이 확증되였음.

o 우리인민은《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총 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진군을 개시하였음.

o 지난 4년간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대단히 강도 높은 투쟁과 과감한 전진의 련속이였음.

o 그 기간 우리 당은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중심에 두고 정확한 정치로선을 수립하고 견지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여 왔음.

o 최근 년간에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주체무기들이 개발 완성되여 우리국가의 필승의 기상이 만천하 과시되였음.

o 오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o 당 제7차대회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고수하고 빛 내이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긴 철리임.

- o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로선을 틀어쥐고 전진하여온 과정에 경제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음.
- o 지난 4년간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된 나날이였음.
- o 우리 인민은 당 제7차 대회가 있은 2016년에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에서 자랑찬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였고 2017년에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새기였으며 2018년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틀어쥐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고 2019년을 자력갱생의 위력이 총폭발된 승리의 해로 빛내이였음.
- o 이 나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여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음.
- o 삼지연시가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로 눈부시게 솟구쳐 오르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섰으며 황금해의 기적창조, 농업전선에서의 다수확성과가 이룩되고 경공업부문에서 인민들이 선호하고 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이 쏟아져나와 우리국가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음.
- o 정면돌파전이 시작된 올해에 순천린비료공장이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로 일떠서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이 힘 있게 진척되고 있는 현실은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o 당 제7차대회의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승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임.
- o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당과 국가활동의 모든 사업을 당 제7차대회의 과업관철에로 지향시키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왔음.
- o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에서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여 우리의 투쟁이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 권위를 비상히 높이도록 하신분이 김정은 위원장임.
- o 우리인민은 김정은 위원장의 두리에 철통 같이 뭉쳐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 나갈 것임.

인민경제 선행부분 생산 정상화 강조

▌주요 내용(5.7, 노동신문)

o 사회주의조선의 기상과 자립경제의 발전 잠재력을 과시하며 순천린비료공장이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서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포성을 울린 소식은 지금 전체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음.

o 온갖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우리 식의 린비료공업기지가 솟아난 것은 자력갱생의 불변침로 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만년대계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주체화 로선과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 같은 충성심과 헌신적 투쟁이 안아온 자랑찬 승리임.

o 당의 령도 따라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 있게 추동해 나가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특히 선행부문이 기치를 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함.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음.

《우리는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합니다.》

o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앞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일관한 립장임.

o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울 데 대한 과업을 뚜렷이 밝히였음.

o 전력문제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과업과 방도들은 우리나라 경제건설의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타산에 기초한 명안중의 명안임.

o 자립경제의 전초기지인 석탄전선의 로동계급이 생산돌격전을 벌려 석탄생산을 늘이고 있으며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활성화를 위한 투쟁을 맹렬히 벌리고 있음.

o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혁명적진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 제끼려는 선행부문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정상화의 불길이 타 번지도록 고무 추동하고 있음.

o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시대적 사명감을 간직하고 경제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전력과 석탄, 원료와 연료, 수송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분발함으로써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하루 하루를 값 높은 위훈으로 빛내여 나가야 함.

- o 경제강국 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며 설비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함.
- o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올해를 금속공업부문이 들고일어나는 해로 만들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주체철 생산 토대를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는 것과 함께 현행생산을 적극 밀고나가야 함.
- o 김철과 황철에서 대형산소분리기 설치공사를 다그치는 것을 비롯하여 금속공업 부문의 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야 함.
- o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만년재부인 순천린비료 공장을 일떠세운 긍지 드높이 중요화학공업기지건설 및 개건대상들을 알심 있게 완성하도록 하여야 함.
- o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함.
- o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최대로 늘이고 발전설비들의 원성능을 회복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리며 생산된 전력을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함.
- o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석탄이 꽝꽝 나와야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이 활력 있게 전진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긴장한 석탄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o 탄광들의 능력확장공사를 다그치고 고속도굴진운동을 힘 있게 벌려 석탄생산을 늘여야 함.
- o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서 철도수송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함.
- o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물자들의 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o 오늘날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일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분발하여 혁명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o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은 당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경제작전, 계획화사업을 현실성 있게 바로하고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야 함.
- o 수천 척 지하막장과 용해장 등 초소와 일터마다에 굴함 없는 공격정신, 용감무쌍한 돌격기상이 차넘치게 화선식 선전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나가야 함.
- o 모든 당조직들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적극 지원하고 선행부문에 대한 보장사업을 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 o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여 가야 할 것임.

알곡생산 목표 수행 위한 모내기 독려

▌주요 내용(5.11, 노동신문 사설)

o 모내기철이 왔음.

o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더 높은 다수확 성과를 안아올 일념으로 끓어 번지고 있음.

o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함.

o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음.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o 모내기는 한해농사의 운명을 좌우하고 시기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영농공정임.

o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내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음.

o 올해농사를 잘 지어 만풍년의 농악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존엄 높은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전반적 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임.

o 정면돌파전략의 성사여부는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이미 이룩한 다수확 성과를 얼마나 공고히 하고 확대해 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음.

o 최근 년간 농업부문에서는 전례없는 과학농사열풍 속에 다수확단위, 다수확자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지난해에는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음.

o 농업부문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계속 승전고를 높이 울리면 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이 들고 일어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임.

o 하기에 당에서는 농업전선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데 대하여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임.

o 올해야말로 농업전선이 무섭게 용을 쓰며 일떠서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백배, 천배해주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용진해가는 총진군 대오에 더 큰 활력을 부어주어야 할 해임.

o 우리는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사회주의조선이 어떻게 부닥치는 도전들을 극복하며 승리의 개가를 힘차게 울리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함.

- o 올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은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크나큰 로력적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o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온 위대한 어머니당임.
- o 우리 당이 펼치는 모든 구상과 작전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받들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여 있음.
- o 오늘날 당에 대한 충성도, 애국의 열도도 농업전선을 어떻게 대하고 알곡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됨.
- o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내기의 승전포성으로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함.
- o 모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임.
- o 모내기는 시간을 다투는 영농작업임.
- o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o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면 농기계들의 만 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o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동수리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것이 중요함.
- o 모내기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음.
- o 모내기의 직접적 담당자,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임.
- o 온 나라가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 있게 지원하여야 함.
- o 전민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힘 있게 지원하여야 함.
- o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o 사회주의경쟁을 실속 있게 조직하여 온 나라 협동벌에 집단적 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함.
- o 모두 다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여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당 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군민대단결로 정면돌파전 승리’ 강조

▌개 요

o ‘군민대단결로 정면돌파전 승리’ 강조(5.14, 노동신문·중앙방송)

o 제목: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주요 내용

o 오늘 정면돌파전의 불길 속에서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정민돌파전 사상이 제시된 올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전선에서 제일 먼저 승리의 기발을 꽂은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테이프를 끊고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o 군민대단결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고 주체조선의 국풍임.

- 우리 인민과 군대는 항일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로정에서 함께 시련을 헤쳐 왔음. 혁명의 갈피마다에 새겨져 있는 의의 깊은 사변들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마다에는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에서 일치를 이루고 당 정책을 관철하여 온 인민과 군인들의 위훈의 자욱이 어려 있음.

o 군민대단결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

- 지난해 우리 인민과 군인 건설자들은 당의 구상을 받들어 삼지연시를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로 일떠세우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세상에 자랑할만한 창조물로 건설하였으며 올해에도 순천린비료공장을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재부로 안아올렸음.

o 군민대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떨칠 수 잇게 하는 보검임.

- 군민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에서의 일치, 이것은 주체조선의 큰 자랑이며 블가항력임. 군민대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감으로써 정면돌파전을 사상관철전, 당 정책 옹위전으로 일관시켜야 함.

o 인민군대가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제껴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 인민구대를 내세워주고 있음. 인민군대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대 건설 구상을 실천해나가는데서 기수, 돌격대가 되어야 함.

- 당의 뜻을 받들어 순천린비료공장을 일떠세운 정신으로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들에서 새로운 건설속도, 시대적 본보기를 창조하며 내달려야 함.

o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야 함.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함.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받드는 인민군대의 자세를 따라 배우고 실천에 구현해나갈 때 시련은 격파되고 자력번영의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울 수 있음.

o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함.

-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군민대단결 사상으로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함.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군민 일치의 미풍을 구현하여 원군, 원민의 기풍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o 우리의 앞길에는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당의 위업에 충직한 인민과 군대가 있기에 승리는 확정적임.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 강조

▌개 요

o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 강조(5.18, 노동신문)

o 제목: <당 정책 결사관철의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사설)

▌주요 내용

o 정면돌파전이 맹렬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당 정책 결사관철의 열풍이 일고 있음.

-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받들어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총 진군길에서 순천린비료공장이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로 일떠선 것은 당 정책 절대 신봉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안아 온 결실임.

o 인민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에 총매진하고 있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것은 당의 존엄과 권위, 사회주의건설의 전진과 잇닿아 있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임.

o 올해는 당 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임. 수백만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어머니당의 생일을 의의 깊고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할 때임.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당의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야 함.

o 당 정책 관철의 성과 여부는 당 정책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달려 있음. 당 정책 관철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자각,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조건 수행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함.

o 정면돌파전의 기본 전선인 경제전선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여 당 정책을 결사관철하여야 함.

- 남에 대한 의존을 불사르고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며 증산절약투쟁과 재자원화 사업을 벌리는 것을 비롯하여 당의 정책적 과업들을 관철하여야 함.
- 국내의 생산·연구·개발 단위와 협동하여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부족되는 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나가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함.
- 조건이 불리할수록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며, 있는 로력·설비·자재를 가지고 당의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함.

o 전체 당원들은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끄는 진격의 나팔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함. 정면돌파전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 정책 옹위전으로 일관되도록 온 나라가 당 정책 관철로 끓게 하여야 함.

건전한 언어생활 강조

▌개 요

o '외래어·잡탕말'이 아닌 '민족어·평양문화어' 사용 등 건전한 언어생활 강조(5.19, 노동신문)

o 제목: <언어생활에서의 주체성과 민족성>

▌주요 내용

o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임.

o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사회주의 본태를 고수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

-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민족어를 홀시하고 외래어, 잡탕말을 쓰는 것은 유식한 것이 아니라 혁명성, 계급성이 없는 표현임.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지켜야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우리의 사상 진지를 고수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본태도 살려나갈 수 있음.

- 《김정일애국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백두산대학》, 《자력자강》, 《처녀어머니》와 같이 당의 사상이 집약되여 있고 주체조선의 기상과 인민의 지향이 비껴있는 시대어들은 주체성과 민족성으로 일관되여 있음. 인민들이 시대어를 비롯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쓸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과시될 것임.

o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근본 요구로 나섬.

- 사람들의 문화도덕 수준, 국가의 문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언어에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음. 우리가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다그쳐 나가자면 유구한 력사와 민족의 우수성이 깃든 문화어를 적극 살려써야 함.

- 우리 말의 표준 문화어는 평양말임. 평양문화어는 민족어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이 집대성되고 현대적으로 세련된 언어임. 우리는 평양말을 사랑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언어생활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다그쳐 나가야 할 것임.

o 언어생활에서는 청년들이 모범이 되어야 함.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에게 달려 있음.

o 모든 당원, 근로자, 청년들은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감으로써 인민으로서의 사상정신적, 문화도덕적 풍모를 떨쳐나가야 할 것임.

국산화 실현 사업 강조

▌개 요

o 국산화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사업' ,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 강조(5.20, 노동신문 논설/국산화에 참된 애국이 있다)

▌주요 내용

o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해나가는 격렬한 투쟁속에서 이룩되고 있는 국산화의 소중한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임.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 내여 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o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임.

o 오늘의 정면 돌파전은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사회주의승리의 전진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임.

o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며 명실공히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임.

o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직결되여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업임.

o 나라와 민족의 존엄은 그 누구의 선사품도 아니며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의 슬기와 지혜로, 자기의 것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임.

o 제 것이 없고 힘이 약하면 남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며 나중에는 자주권과 생존권마저도 잃게 됨. 남에 대한 의존심과 국경밖을 바라보는 수입병, 자기의 것은 남의 것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허무주의는 혁명의 전진을 저애하는 걸림돌이며 유해로운 사상경향임.

o 국산화야말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애국중의 애국임.

o 국산화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님. 애국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고 비상한 각오와 의지가 없이는 헤쳐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산화의 길임.

o 국산화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사수전임.

o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애국의 감정은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싹트고 자라나게 됨.
-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애착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리용하는 모든 것과 하나로 잇닿아 있음.
- 우리 당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콩우유와 《민들레》학습장, 《소나무》책가방 생산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올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온 나라 학령전어린이들에게 《해바라기》학용품을 가슴 한 가득 안겨준 것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서임.
- 국산화를 실현해나갈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고 애국자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됨.
- 국산화는 자립, 자력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
- 우리 식으로, 우리의 것으로 전진하고 흥하는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임.
- 우리의 원료와 자재, 설비로 자립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 때 그 어떤 외적 요인에도 무관하게 인민경제의 지속적,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음.
- 국산화이자 주체적 힘, 내적동력의 강화이고 사회주의의 전진속도임.
- 순천린비료공장의 완공은 우리 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제 손으로 자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임.
- 정면돌파전의 모든 전구에서 국산화,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퍼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보다 활력 있게 전진하게 됨.
-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열, 애국열을 더욱 고조시켜 국산화의 성과들을 끊임없이 확대함으로써 당창건 75돐이 되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안아와야 할 것임.

긍정적 모범 사례 따라배우기를 통한 긍정감화교양 사업 강조

▌개 요

o 긍정적 모범 사례 따라배우기를 통한 긍정감화교양 사업 강조(5.21, 노동신문)

o 제목: <긍정감화교양은 참된 혁명가를 키우는 중요한 사업> (논설)

▌주요 내용

o 정면돌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 집단주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전진의 기상,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자면 긍정감화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o 긍정감화교양은 대중 속에서 창조되는 모범적인 사실들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 배우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개조하는 사상교양방법임.

o 긍정적 모범은 그 자체가 낡고 뒤떨어진 것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며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것에로 지향시키는 추동력임. 긍정감화교양의 심화이자 사회주의 건설의 활력임.

o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당의 사상관철전, 권위옹위전이며 오늘의 시대는 당이 준 과업을 당이 정해준 시간, 바라는 높이에서 해제끼는 완강한 실천가들을 부르고 있음.

-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자들은 올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전 전선에서 제일 먼저 승리의 기발을 꽂았음.
- 당의 구상은 곧 과학이고 승리임을 현실로 확증한 당 정책 절대 신봉자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해 나갈 때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성과들이 이룩될 것임.

o 긍정의 싹, 미풍의 싹, 혁신의 싹을 적극 찾아 내세워주는 것이 중요함.

- 일군들이 참된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파고들어 그들의 모범을 대중 앞에서 평가해주면 긍정을 창조한 사람들은 새로운 모범을 창조할 각오를 가다듬게 되고 군중은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사업하고 생활해나가게 됨.
- 말 한 마디가 천냥 값이라고 소박한 소행도 값 높이 여겨주는 집단의 평가는 큰 힘을 낳는 법임.

o 모든 부문, 단위에서 긍정감화교양을 심화시켜 정면돌파전이 주체적 힘을 강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 없이 떨치는 과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청년 사상교양 강화 강조

▌개 요

o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수분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 강화 강조(5.22, 노동신문)

o 제목: <청년들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주요 내용

o 지금 인민은 당 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진군을 다그쳐 나가고 있음.

o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며 청년들이 앞장에서 내달릴 때 추진될 수 있음. 현실은 모든 청년들이 전위투사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 해 나가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청년들이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교양사업과 잇닿아 있음.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극이 초래된 것은 청년교양문제를 소홀히 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음.

o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첫째 과녁은 바로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 청년들임.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지 않으면 사회주의진지를 지켜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o 청년 교양의 총적 목표를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수분자로 키우는 것임. 그 자양분은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임. 청년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로 키울 수 있는 담보가 있음.

o 청년동맹에서는 동맹조직 강화의 된바람을 일으켜 각급 동맹조직들을 조직성, 규률성,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만들며 혁명적 사업체계를 세워야 함.

o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은 청년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뜻을 새기고 자기 지역·단위의 청년동맹사업에 당의 사상·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정책적·정치적 지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함.

o 당 조직들과 청년동맹 조직들은 청년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모든 청년들을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참된 혁명가들로 준비시켜야 할 것임.

생물다양성 보호 적극 대처 강조

▌개 요

o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생물다양성 보호 적극 대처 와 생물다양성협약 체약국의 의무이행 강조(5.22, 노동신문/인류의 공동과제 - 생물다양성의 보호)

▌주요 내용

o 5월 22일은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임.

o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 미생물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 그리고 생물과 환경의 호상작용으로 이루어진 생태계와 생태과정을 통털어 이르는 말임.

o 20세기 후반기부터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증가, 과도한 자원채취 등으로 인하여 지구의 생태환경은 심히 파괴되였으며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음.

o 현재 세계가 직면한 인구, 식량, 자원, 에네르기, 환경의 5대문제는 모두 생물다양성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련관되여 있음.

o 유엔은 생물다양성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관심과 인식을 높여주기 위하여 해마다 5월 22일을 국제생물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음.

- 올해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의 주제는《자연에 우리의 해결책이 있다》임.

o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0년 사이에 많은 농작물과 집짐승품종이 사라져 농업부문에서 생물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함.

- 그리고 세계 주요 어장들에서의 과도한 어로활동에 의해 해양생물다양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100만종의 동식물이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중 많은 종들이 앞으로 몇십년 동안에 사멸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음.

- 이러한 실태는 세계적인 식량생산체계를 위협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물의 가지수를 감소시키며 당뇨병과 영양실조와 같은 여러 가지 병을 초래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o 현실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보호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산림복구전투가 힘 있게 벌어지고 있음.

- 또한 수많은 유용동물을 산과 바다에 놓아줌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백두산과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금강산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고 문덕철새보호구와 라선철새보호구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생물다양성중점 지역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등 생물다양성보호사업을 활발히 벌려 나가고 있음.

o 우리는 앞으로도 생물다양성협약체약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 나갈 것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명절·휴식일로 지정

▌개 요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을 명절·휴식일로 지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5.23,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하였음.

o 1932년 4월 25일은 김일성 수령이 주체형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한 날임.

-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해나가는 조선혁명의 력사가 시작되였음.

o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4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하며 해마다 이날을 국가적 휴식일로 함.

-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0일에 발표되였음.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령, 군 승진인사 단행

▌개 요

o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명령 제0015호,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발표(5.23,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0015호(2020년 5월 23일 평양)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 혁명무력의 전투적 기질과 위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며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은 당의 신념이며 의지임.

- 나(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는 공화국 무력의 핵심 골간들인 모든 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 해 나가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요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 것을 명령함.

- △차수 박정천 △대장 정경택 △상장 최두용, 김정길, 권영진, 권태영, 최광준, 한순철, 김병섭 △중장 김국창, 우명남, 신인영, 김춘교, 엄성일, 김주삼, 정명도, 리경천, 리영철, 홍정득, 전승남, 려철웅, 김도운, 박성찬, 로영길, 리일남, 안광남, 김춘원, 김춘범, 림영철 △소장 리성민, 김봉호, 박영관, 김국현, 주동철, 조광석, 김강일, 박경호, 김효남, 김동철, 리경철, 리창호, 김천혁, 리영철, 하철, 신금철, 최창후, 박성렬, 전철, 남철, 현은철, 신철룡, 문광국, 심동준, 김영근, 박일학, 김철만, 최산호, 백기철, 방광남, 윤복남, 김룡철, 윤일남, 윤황철, 김학철, 황내윤, 정명남, 심원철, 한주성, 전경상, 김순철, 고정철, 장근필, 박동규, 김명호, 리정철, 박일수, 심성빈, 한영범, 김광훈, 함효식, 김명호, 김광수, 박성주, 김원봉, 홍명석, 최항문, 윤철호, 서강철, 리춘삼, 김명남, 방룡일, 윤효성, 강금철, 리용섭, 강철현, 김경중, 배동남, 리주호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완공 의의 강조

▌개 요

o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완공은 '충성의 노력적 선물,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 강조(5.23,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나라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

o 대규모관개체계인 황해남도물길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된데 대하여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정면돌파전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번영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는 시기에 황해남도의 대규모관개체계가 훌륭히 완성되였음.

o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과 황해남도 인민들은 자력갱생, 간고 분투하여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3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는 영웅적 위훈을 떨치였음.

o 2단계 공사의 완공으로 황해남도물길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벽성군, 강령군, 옹진군, 봉천군, 청단군과 새로 개간되는 룡매도 간석지 등 서해 곡창의 드넓은 전야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대주어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음.

o 나라의 서부지구에 우리 식의 관개망이 특색 있게 형성되여 해마다 수천만kWh의 양수동력용전력과 수많은 양수설비들을 쓰지 않게 되였으며 재령강, 례성강 하류 지역의 큰물피해를 미리막아 국토를 보호하고 사회주의대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킬 수 있게 되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 뜻으로 떨쳐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o 황해남도물길은 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 위원장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임.

o 농촌수리화 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기 위해 개천-태성호 물길을 비롯한 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신 김정일은 주체100(2011)년 4월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을 하달하였음.

o 김정일은 설계로부터 건설력량편성, 자재와 자금, 건설자들의 후방보장에 이르기까지 황해남도의 물길건설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현명하게 령도하였음.

o 2011년 12월 14일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물길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황해남도의 관개용수문제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김정일의 애국헌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황해남도의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서 물길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대자연 개조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켰음.

o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 들어선 2012년 1월 황해남도물길건설이 착공되였음.

o 개천-태성호물길보다 전반적공사량이 더 많은 황해남도물길건설은 암반굴착과 토량만도 1,180여만㎥에 달하고 수십개의 물길굴과 770여개의 각종 구조물, 대규모용수잠관들을 가진 190여㎞의 물길을 형성해야 하는 지금까지의 자연흐름식관개망에서 규모가 제일 큰 대건설 전투였음.

o 1단계 공사시작부터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났음. 건설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대자연을 다스리며 5년간의 간고한 격전을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황해남도물길 1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였음.

o 황해남도물길건설자들은 1단계 공사에서 발휘한 완강한 공격정신과 굴함 없는 투쟁기풍으로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 공사에 진입하였음. 1단계 공사 못지않게 토량처리와 암반굴착, 콩크리트타입 등 기초공사부터 방대한 량을 해제끼고 저수지언제와 200여리의 물길, 물길굴과 잠관, 암거를 비롯한 수백개의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2단계 공사 역시 어렵고 힘든 대건설 전투였음.

o 현장을 들었다 놓는 격동적인 경제선동활동과 중기계들의 우렁찬 동음 속에 돌채취와 운반, 장석쌓기 등 사석언제건설이 립체적으로 벌어져 140만여㎥의 모래와 자갈, 진흙으로 든든히 다져진 저수지언제가 《자력갱생》이라는 대형글발을 새겨안고 2019년 4월 우뚝 솟아올랐음.

o 흙물길공사의 주력인 황해남도려단에서 진군포성을 드세차게 울리였음.

o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다그칠 데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 속에 받아 안은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10만산대발파의 뢰성으로 흙물길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인 청단군 운곡지구의 수백m에 달하는 천연암반구간을 단숨에 들어내고 공사를 제 기일에 끝낼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음.

o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농업성, 건설건재공업성, 전력공업성, 철도성,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 림업성, 경공업성,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해주강철공장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련관단위들과 여러 도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정면돌파전의 총진군길에서 조국번영의 또 하나의 만년재부를 마련한 물길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대자연개조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고 있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채택 '재자원화법' 해설

▌주요 내용(5.25, 중앙통신)

o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채택되였음.

o 재자원화법은 나라의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지속적발전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

o 4개 장(재자원화법의 기본, 재자원화계획, 폐기페설물 및 생활오물의 관리,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46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사상문화진지' 구축 강조

▌개 요

o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사상문화진지' 구축 강조(5.26, 노동신문)

o 제목: <사상문화진지를 백방으로 다지는 사업의 중요성>

▌주요 내용

o 사회주의의 전진은 사상문화진지의 공고성에 의하여 담보됨.

o 사상문화진지를 다지는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한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업임. 경제 건설에만 치우치면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와 현상들을 방임하면 사상문화진지가 허물어지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력사가 새겨주는 진리임.

o 사회문화진지를 공고히 다지는 것은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임. 혁명적인 사상문화가 차 넘치는 곳에서 자립, 자력의 기상이 나래치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됨.

o 당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 사상을 제시하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며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전체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으로 준비될 때 진군 속도를 가속화될 것임.

o 사상문화진지를 공고히 다지는 것은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임. 민족성은 언어에서 뚜렷이 나타남. 제국주의자들은 썩어빠진 사상문화를 글줄과 선율, 생활용품 속에 교묘하게 숨겨 우리 내부에 들이밀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음. 그것을 각성있게 대하지 못하고 한갓 흥밋거리로 보고 흉내낸다면 민족문화는 점차 변색되고 썩어빠진 부르죠아 생활풍조가 만연하게 됨.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 쓰며 민족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 민족성이 고수됨.

o 현 시기 사회주의 사상문화진지를 공고히 다지는데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중요한 문제로 나섬.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의 주되는 과녁은 청년들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은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위험성과 해독적 후과를 똑똑히 알고 사상문화진지를 고수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야 할 것임.

인민경제 전역의 연대적 혁신 촉구

▌주요 내용(5.26, 노동신문)

o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포성을 울린 순천린비료공장의 준공은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의 일대 과시임.

o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자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처음으로 이룩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소중한 성과를 불씨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에서 련대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함.

o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o 련대적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은 서로 책임지고 도와주는 립장에서 긴밀하게 협동하여 다 같이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함.

o 다시 말하여 인민경제의 련관된 부문과 단위들 사이에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서로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걸린 문제를 풀고 다 같이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나간다는 것을 말함.

o 지금 우리에게는 애로도 있고 부족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님.

o 련대적혁신의 불길이자 주체적 힘, 내적동력의 강화이고 정면돌파전의 힘찬 활력임.

o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경제의 균형적, 지속적 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임.

o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음.

o 오늘 우리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

- 신발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들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자면 초보적으로 전력과 함께 합성가죽, 합성수지와 천, 고무 등 원자재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

- 이것은 전력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련관부문, 단위들의 협조와 협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음.

o 경제전반을 추켜세우는데서 경계해야 할 것은 본위주의임.

o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임.

o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임.

o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련대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유네스코민족위원회, 백두산지역 세계지질공원 등록 추진

▌주요 내용(5.31, 중앙통신)

o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백두산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백두산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지질학적의의가 큰 것으로 하여 국제지질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o 우리나라의 해당 부문 과학자들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사와 연구과정에 백두산 지역의 지질학적특성과 세계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론증하였으며 이 지역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였음.

o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주체107(2018)년에 백두산지역을 우리나라의 첫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할 것을 결정하고 유네스코의 절차규정에 따라 추천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신청문건을 제출하였음.

o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신청문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

o 백두산지역은 1989년에 우리나라의 첫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였음.

대남동향

통일부 '남북관계발전 시행 계획' 비난

▌주요 내용(5.1, 우리민족끼리)

o 얼마전 남조선통일부가 현실성도 없는 잡다한 협력교류문제들을 잔뜩 반영한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음.

o 참으로 빈 달구지소리가 더 요란하다는 속담 그대로임.

o 사실 통일부는 해마다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업무계획》이니, 《시행계획》이니 하는 문서장들을 발표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생색만 낼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개점휴업부서》, 《공밥먹는 부서》로 비난받고 있음.

o 지금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여념이 없는 남조선당국이 마치 언제 그랬던가 싶게 그 무슨 《협력》, 《교류》타령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책임을 모면하고 내외여론을 기만해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음.

o 남조선 각계층 속에서 통일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에 대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복사판》, 《반쪽짜리 일회성계획》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우연치 않음.

o 남조선당국은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부질없는 말장난질을 걷어치우고 북남관계를 교착국면에 몰아넣은 저들의 죄악부터 똑바로 반성해야 함.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 우리 군 합동군사연습 비난

▌개 요

o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5.7.), 우리 군의 합동군사연습 비난(5.8,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o <대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

▌주요 내용

o 6일 남조선 군부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소속 《F-15K》, 《KF-16》, 《F-4E》, 《FA-50》전투기 20여대와 해군 2함대소속 고속정 등을 조선서해 열점지역에 내몰아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음.

o 남쪽 군부호전광들이 자행한 이러한 망동짓은 군사적 대결의 극치임.

o 모든 것이 2018년 북남수뇌회담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음.

o 이번 합동연습은 지난 시기 북남쌍방사이에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서해 최대열점지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되였으며 우리의 그 무슨 《이상징후》와 《도발》을 가정해놓은 상태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였음.

o 더우기 엄중한 것은 남조선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는 사실임. 이는 절대로 스쳐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

o 그 어디에도 변명할 수 없는 고의적인 대결추구가 아닐 수 없음.

o 남조선군부는 이번 합동연습의 목적이 북의 화력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적》의 《도발》원점을 타격하고 지원세력을 격퇴하는 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음.

o 남조선군부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전면역행이고 로골적인 배신행위임.

o 적은 역시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뼈속 깊이 새겨주는 기회로 되였음.

o 적이 우리를 치자고 공공연히 떠들며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겠는가.

o 주체109(2020)년 5월 7일 평양

우리 군 군사훈련 비난

▌개 요

o 8월 '림팩' 합동군사훈련 참가 결정 등 우리 군 군사훈련 비난(5.12, 우리민족끼리)

▌주요 내용

o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각종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강행하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o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 호전광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륙군 3사단의 쌍방훈련,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의 공격편대군훈련, 지상 및 공중 비상대기 항공차단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술, 기동, 사격, 락하, 도하, 반화학, 반테로 등 중단되였던 각종 단독훈련들을 련속 벌려놓고 있음.

o 특히 지난 4월 20일부터 5일 동안 남조선강점 미공군과 함께 대대급공중련합훈련을 벌려놓은데 이어 오는 8월 미군이 주관하는 《림팩》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o 이것은 우리를 기어이 군사적으로 압살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드러낸 무분별한 망동임.

o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재앙을 당하고 있음. 이러한 때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수만 명의 병력이 집결되여 련일 불장난소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 대결광기가 얼마나 극도에 달했는가를 잘 알 수 있음.

o 이번에 남조선 호전광들이 감행한 그 무슨 상륙훈련, 공격편대군훈련, 공중련합훈련들은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북침전쟁연습들이며 북남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란폭한 위반임.

o 남조선군부는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 어떤 파멸적인 후과를 초래하겠는가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

‘6.25 70주년 기념사업’ 비난

▌주요 내용(5.13, 우리민족끼리)

o 최근 《유엔군사령부》것들이 이른바 《6. 25전쟁 70주기를 추모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명예롭게 찬양》한다고 하면서 지난 조선전쟁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함.

o 아마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패전의 수치, 범죄의 진실을 가리우기 위해 별의별 고안을 다 해내고도 아직 자료가 무척 모자란 모양임.

o 지난 조선전쟁시기 침략자 미제를 비롯한 살인마들은 우리 민족을 상대로 하여 반인륜적인 대살륙전을 감행하였음. 피에 주린 살인마들의 눈에는 남녀로소가 따로 없었음.

o 오늘도 신천 땅에는 백둘 어린이와 사백 어머니들을 비롯하여 무고하게 학살된 사람들의 원한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치고 있음. 어찌 신천뿐이랴. 침략자, 살인마들의 군화발이 닿은 곳마다에서는 우리 민족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음.

o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침략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상대로 치떨리는 살륙만행을 감행한 20세기의 야만들, 국제전범재판소에 내세워 준엄한 징벌을 가해야 할 전범자들임.

o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대매국에 환장하여 《유엔군참전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까지 제정하며 대미추종에 광분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추악한 추태임.

o 미국의 식민지가 된것을 수치가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며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상전에게 섬겨바치는 어리석은 짓도 서슴없이 해대고 미국산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상전의 북침전쟁책동에 동조해 나서다 못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쓸개빠진 놀음에만 정신없이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행태는 그대로 매국적, 민족반역행위를 일삼는 보수패당의 죄악과 일맥상통함.

o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도 분렬의 비극과 아픔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장장 수십년 동안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도 외세에게 넋을 빼앗긴 매국노, 반역자들의 반민족적 행위와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음.

o 《유엔군사령부》것들과 그 추종자들이 수치스러운 패배와 범죄의 력사를 가리워 보려고 비렬하게 놀아대지만 력사는 지울 수도 외곡할 수도 없음.

통일연구원 발간 '북한인권백서' 관련 비난

▌주요 내용(5.15, 우리민족끼리)

o 지난 11일 남조선총리실산하 《통일연구원》것들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외곡하고 중상모독한 모략적인 《북인권백서 2020》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놀음을 벌렸음.

o 이것은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동족 간에 불신과 반목을 야기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대결망동임.

o 인권의 기본징표인 자주권도 없는 식민지하수인, 외세로부터 버러지취급을 당하는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 노릇임.

o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며 주제넘게 남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5.18희생자들과 《세월》호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원한의 대못도 뽑아주지 못하는 무맥하고 가련한 제 처지와 제집안의 한심한 인권실상이나 돌아보고 수치를 느껴야 함.

o 남조선당국이 력대 보수《정권》의 쓰레기장에 처박혀있던 다 꿰진 《인권》북통을 주어들고 광대놀음을 벌리는 꼴을 보면 극악무도한 동족대결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은 리○○, 박○○패당의 집권말기를 보는 것 같음.

o 남조선집권자가 앞에서는 《협력》을 운운하며 노죽을 부리고 뒤에서는 아래것들을 시켜 《탈북자》쓰레기들이 싸지른 배설물들을 모아 도발책자나 만들게 하니 과연 제정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o 안팎이 다르고 분별도 체면도 다 잃고 더러운 짓만 해대는 것들과는 애당초 상대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날로 더욱 굳어져가는 우리의 립장임.

o 우리 인민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에 먹칠을 하려드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임.

5.18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성토문 발표

▌주요 내용(5.18, 우리민족끼리)

o 《우리 민족끼리》편집국은 하늘도 원한 속에 통곡케 하고 초목도 울분 속에 몸부림치게 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대범죄를 감행한 광주학살주범들과 그를 부정하고 비호두둔하는 독재후예들을 온 민족의 저주와 분노를 담아 강력히 단죄규탄하면서 이 성토문을 발표함.

o 광주인민봉기자들에 대한 대학살만행은 극악무도한 군사파쇼불한당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대범죄임.

o 력사는 이미 광주대학살을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과 전○○일당의 공모결탁의 산물로, 상전과 주구를 극악한 대학살만행, 반인륜적대범죄의 주범으로 락인하였음.

o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와 세기가 바뀌여도 학살만행의 진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 없고 5월광주참변으로 맺힌 한은 절대로 풀 수 없음.

o 하지만 40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야수적인 학살만행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살인악마들에 대한 준엄한 판결도 내려지지 않고 있음.

o 지금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역적패당은 광주대학살만행을 어둠속에 영영 묻어버리고 학살주범들에 대한 력사의 준엄한 판결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음.

o 광주대학살만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죄악, 대범죄임.

o 광주인민봉기자들의 피맺힌 원한은 결코 망월동의 무덤 앞에 추모의 꽃송이를 놓는다고 하여, 가슴아픈 추억과 통탄의 눈물을 떨군다고 하여 씻기여지는 것이 아니며 더우기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 가셔지는 것도 아님.

o 오직 대학살자들에 대한 단호한 판결, 그 후예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만이 유일한 해결책임.

o 피로 얼룩진 반인륜적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단죄성토되여야 하며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야 함.

o 남조선인민들은 불의와 독재에 굴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움 없이 영웅적으로 싸운 광주항쟁렬사들의 불굴의 넋을 이어 광주학살주범처벌, 보수적폐청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살인귀들과 그 후예들을 단호히 끝까지 징벌하여야 할 것임.

우리 군 기강문제 비난

▌주요 내용(5.20, 우리민족끼리)

o 최근 남조선군부내에서 각종 범죄행위들이 더욱 성행하고 있어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음.

o 사병들 속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인터네트에 접속하여 성록화물들을 시청하고 도박행위를 하는가 하면 마약범죄에 가담하고 국제 테로조직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각종 범죄가 우심해지고 있음.

o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오합지졸의 무리》, 《범죄서식지》 등의 비난과 조소가 그칠 새 없이 울려나오고 있음.

o 당황한 남조선군부가 《범죄련루소지》를 막는다며 《규범적차단》과 《처벌강화》를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한갖 속병에 고약 바르는 격의 어리석은 《처방》일뿐임.

o 남조선군부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성행하는 각종 범죄들은 황금만능,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사회악이 빚어낸 말세기적풍조임.

o 하기야 정치인이라는 자들부터가 성범죄, 부정부패행위와 같은 망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온 남녘땅이 《n번방사건》으로 일컫는 특대형성범죄사건을 두고 분노할 때에조차 《호기심》이라며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추태를 부려대는 판이니 그런 사회에서 그 무슨 건전한 사고와 생활을 론할 수 있겠는가.

o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 인륜도덕이 말살되고 더러운 외풍에 푹 절어있는 남조선사회에서는 극단한 리기주의에 물젖은 기형아, 변태와 타락의 미궁에 빠진 정신적불구자들이 무더기로 생겨나기 마련임.

o 오죽하면 사회각계가 온갖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를 《썩은 물 고인 웅뎅이》라고 비난하겠는가.

o 그러니 사회에 범람하는 각종 범죄행위들이 남조선군부에 성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필연임.

o 패륜아들의 서식지로 전락된 남조선군내부의 실태는 썩을 대로 썩은 남조선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대외동향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념메달·증서 전달

▌개 요

o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국전쟁승리 75주년' 기념메달·증서 전달 (5.6,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조국전쟁승리 75주년에 즈음하여 기념메달을 주었음.

o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5돐' 기념메달을 전달하는 의식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음.

o 리선권 외무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음.

o 기념메달과 증서를 위임에 의하여 알렉산드로 대사가 리선권 외무상에게 전달하였음.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축하 구두 친서’ 전달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사업 성과 축하 구두 친서’ 전달(5.8,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방역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두친서를 보내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령도 밑에 당과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여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시 주석의 건강을 축원하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력사의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굳게 다져진 조·중 두 당 사이의 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였음.

김정은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절' 75주년 축전(5.9, 노동신문)

▌주요 내용

o 나는 로씨야에서의 조국전쟁승리 75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와 인사를 보냄.

o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로씨야 인민은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파시즘을 격멸하는 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냈음.

o 로씨야 인민의 위훈과 공적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할 것임.

o 오늘 조·로 관계는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전우의 정으로 맺어진 친선의 전통을 이어 부닥치는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발전하고 있음.

o 나는 전략적이며 전통적은 조·로 친선관계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전승의 전통을 계승하여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며 세계적 대류행 전염병인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당신과 로씨야 인민이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함.

북-태국 수교 45주년 기념 친선 강조

▌개 요

o 북-태국 수교 45주년 기념 친선 강조(5.9, 노동신문)

o 제목: <날로 발전하는 친선협조관계>

▌주요 내용

o 우리 나라와 타이 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된 때로부터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음.

o 1975년 5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이왕국이 외교관계를 설정한 것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였음.

o 김일성 수령은 일찍이 타이왕국 왕실 가문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의 력사를 마련해주었음. 김일성 수령은 1992년 3월 10일과 1993년 6월 19일 당시 타이왕국 왕세자였던 마하 바지라롱콘 국왕을, 그리고 1991년 3월 28일 마하 차크리 공주를 만나 그들과 담화를 나누는 등 조선·타이 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

o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12월 2일 마하 바지라롱콘이 타이왕국 국왕으로 즉위한 것과 관련하여 축전을 통하여 그와 왕실 가문, 타이 인민들에게 축하와 인사를 보내였음.

o 45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겨온 타이왕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친서' 화답

▌개 요

o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친서' 화답(5.10,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당과 인민이 대류행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두친서를 보낸데 대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친서를 보내여 왔음.

o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선적인 구두친서를 매우 기쁘게 접하였다면서 이번 계기에 자신과 중국 당, 정부, 인민에 대한 김 위원장과 조선 당·정부·인민의 정을 보여주고 중·조 친선의 토대를 크게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음.

o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킴으로써 중조 관계의 전진·발전을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고 김 위원장이 조선 당과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하였음.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소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 제하 담화 발표(5.19,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5월 16일 담화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를 발표하였음.

- 담화는 지난 10일 일본 우익이 조선대학교 앞에서 "조선대학교는 살인대학이다", "도꾜도는 조선대학교의 법인인가를 취소하라" 등의 게시판과 횡단막을 들고 총련과 조선대학교를 중상 모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폭로·규탄하였음.
- 또한 이는 대조선 적대시를 일본 국책으로 내세우고 사회 전반에 조선인 배타의식을 체계적으로 뿌리 깊이 주입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 국가적 범죄행위이라고 단죄하였음.
- 담화는 일본 반동들이 반공화국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공화국과 총련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발악을 해도 부질없는 짓이라고 지적하였음.
-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총련을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망동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담화는 강조하였음.

일본 군사력 증강 비난

▌개 요

o 항공자위대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 보유계획 등 일본 군사력 증강 비난(5.20, 중앙통신)

o 제목: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전범국> (논평)

▌주요 내용

o 일본 정부는 '오스프레이' 수송기 2대를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인데 이어 앞으로 5년 내에 도합 17대를 갖추려 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주역으로 어떻게 하나 솟구쳐보려는 군국주의 광신자들의 야심찬 계획실현의 일환으로서 심상치 않은 사태발전이 아닐 수 없음.

o 섬나라가 근래에 와서 우주작전대와 전자전전문부대, 수송항공대를 비롯한 새로운 부대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하루빨리 완벽한 군사작전능력,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추어나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자위대'의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전범국은 임의의 순간에 제국시대의 옛 지위를 되찾기 위한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감행할 수 있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

o 일본은 외딴섬 방위와 탈환 등의 명분 아래 단독적인 군사훈련에 광분하고 있으며 그렇게 길들인 무력을 미야꼬섬을 비롯한 재침 실현에 유리한 요충지들에 속속 집결시키고 있음.

o 군국주의를 골수에 새긴 사무라이후예들이 재침의 포성을 울리는 것은 시간문제임. 위정자들이 전쟁국가에로의 길이 저들의 번영과 잇닿아있다고 타산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오산임.

o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이루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망상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총련'에 결성 65주년 축전

▌개 요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앞으로 결성 65주년 축전 발송(5.25, 중앙통신·중앙방송)

▌주요 내용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 65주년에 즈음하여 허종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축하와 동포애적 인사를 보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20년 5월 25일 평양).

- 공화국의 해외 공민단체인 총련의 결성은 김일성 수령의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의 결실이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 전환이 일어난 력사적 사변이였음.
-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인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총련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직한 해외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함.
-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조국 인민들의 투쟁 기세에 보조를 맞추어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강국 위업 실현에 이바지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벌려나가야 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절세 위인'들의 이름으로 빛나는 총련을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빛내여 나가리라는 것을 믿음.

‘총련’ 결성 65주년 계기 축하·격려

▌개 요

o ‘총련’ 결성 65주년 계기 ‘정다운 한 식솔·미더운 해외혁명동지’ 축하·격려(5.25, 중앙통신·노동신문)

o 제목: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총련>

▌주요 내용

o 《로동신문》은 5월 25일자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총련이 걸어온 지난 65년은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의 승리의 력사, 동포애·민족애로 수놓아진 사랑의 력사이라고 밝혔음.

- 김일성 수령은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고 그것을 재일조선인운동에 구현하여 재일동포들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왔음.
- 김정일 장군은 사상리론적 예지와 현명한 령도로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변화된 정세와 세대가 교체되는 환경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데 대한 김정일 장군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음.
- 백두산 ‘절세 위인’들이야말로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애국애족의 한 길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해준 령도자임. 그 손길이 있어 총련은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되였음. 백두산 ‘절세 위인’들이 보살펴주고 있기에 총련은 끄떡없으며 그 어떤 광풍도 공화국의 두리에 뭉쳐 나아가는 이 불패의 대오를 멈춰 세울 수 없음.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중국 지지입장 발표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지지입장 발표(5.30, 중앙통신)

▌주요 내용

o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에서 홍콩에서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 제정 문제가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중국의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임.
- 최근 년간 홍콩에서는 중국의 '한 나라,두 제도' 원칙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확대하여 중국을 분렬·와해시키려는 외부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음모의 산물임
- 홍콩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는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 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 반대·배격함.
-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불가분리의 령토임.
- 우리는 중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령토 완정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함.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국무위원장)

(미상) 모범적인 선동원·5호담당선전원들에게 감사 전달(5.1, 중방)

5.1.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5.2, 중방·중통)

(미상)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 전달(5.4, 중방·노동)

(미상) 中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사업 성과 이룩, 축하 구두 친선' 전달(5.8, 중통·중방)

5.9. 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승리 75주년 계기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5.9, 중방)

(미상) 자강도 동신군 청담리에 사는 우익순 할머니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5.20, 중통)

5.20. 카메룬 국경절 계기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에게 축전(5.20, 중통, 5.21. 노동)

5.23.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지도(5.24, 중통·중방·평방·노동)

미상 백 번째 생일을 맞는 현옥선 할머니께 은정어린 생일상 제공(5.27, 중통·중방)

미상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일함 알리예브)에게 '아제르바이잔 국경절' 축전 및 '北-아제르바이잔 친선협조 관계 발전' 강조(5.28, 중통·5.29, 중방·노동)

미상 에티오피아 대통령(사흘레워르크 제우데)에게 '에티오피아 국경절' 축전 및 '양국 친선협조 관계 확대발전 확신' 표명(5.28, 중통·5.29, 중방·노동)

고인호(내각 부총리)

5.10. 김재룡 내각 총리, 2단계 공사 완공 황해남도 물길 여러 곳 방문시 동행(5.10, 중통·중방/5.11, 노동)

김덕훈(당 부위원장)

5.1. 김정은 위원장,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시 동행(5.2, 중방·중통)

김여정(당 제1부부장)

5.1. 김정은 위원장,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시 동행(5.2, 중방·중통)

김재룡(내각 총리)

5.1. 김정은 위원장,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시 동행(5.2, 중방·중통)

(미상) 함경북도內 여러 부문 사업(김책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청진제강, 부령합금철공장, 어랑천3호발전소 건설장, 명간화학공장, 청진화력발전소, 경성애자공장, 경성도자기공장, 중평남새온실농장) 현지 요해 및 "제기되는 문제들 협의대책"(5.4, 중통·중방/5.5, 노동)

(미상) 안석간석지건설장·귀성제염소 현지요해(5.9, 중통/5.10, 노동)

5.8. 北-태국 외교관계 설정 45주년 계기 태국 수상에게 축전(5.14, 중통·중방)

5.10. '2단계 공사 완공 황해남도 물길 여러 곳 방문, 준공 정형 요해 및 건설자들 격려'(5.10, 중통·중방/5.11, 노동)

5.13. 前 라오스 수상 사망 관련 '통룬 시술릿' 수상에게 조전 발송(5.14, 중방)

(미상) 함경남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 요해 및 여러 대상건설 추진문제 협의 대책 참석(5.19, 중방·중통, 5.20. 노동)

5.22. 신임 레소토 수상(모에케치 마조로)에게 축전 및 '兩國 친선관계 강화발전 확신' 표명(5.22, 중방·중통)

미상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 현지 요해(5.23, 중통·중방·평방, 5.24, 노동)

미상 여객기 추락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파키스탄 수상에게 위문 전문(5.23, 중앙방송)

리길성(외무성 부상)

5.14. 前 라오스 수상 사망 관련 駐北 라오스 대사관 조의 방문(5.14, 중통·중방)

리선권(외무상)

5.8. 北-태국 외교관계 설정 45주년 계기 태국 외무상에게 축전(5.14, 중통·중방)

5.9. '러시아 조국전쟁승리 75주년'에 계기 러시아 외무상(세르게이 라브로프)에게 축전(5.9, 중통)

5.19. 신임 코트디부아리 외무상(알리 꿀리발리)에게 축전 및 '兩國 친선협조 관계 강화발전 확신' 표명(5.19, 중통)

박경일(北-라오스친선협회 부위원장)

5.14. 前 라오스 수상 사망 관련 駐北 라오스 대사관 조의 방문(5.14, 중통·중방)

박봉주(당 부위원장)

5.1.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염색종합직장·직포종합직장)과 평양시내 상업봉사단위(평양제1백화점·광복지구상업중심) 현지 요해(4.28, 중방/4.29, 중통)

5.1. 김정은 위원장,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시 동행(5.2, 중방·중통)

(미상)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광명성제염소 소금생산공정 현지 요해(5.11, 중통·중방/5.12, 노동)

미상 황해남도물길(농업용수 보장)·봉천군 신답협동농장(흐뭇한 밀작황 일꾼 고무)·해주트랙터부속품공장(제품 질·부속품 보장)·해주농기계공장 개건현대화 정형(농기계 생산 국산화비중 강화)·류경생활용품공장에 새로 꾸린 생산 공정 등 황해남도內 여러 부문 사업 현지 요해(5.25, 중방·중통, 5.26, 노동)

미상 청천강-평남관개물길 건설장 현지요해(5.31, 노동)

박태성(당 부위원장)

5.1. 김정은 위원장,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시 동행(5.2, 중방·중통)

조용원(당 제1부부장)

5.1. 김정은 위원장, 순천인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시 동행(5.2, 중방·중통)

월간 보도일지

5.1.(금)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모범적인 선동원·5호담당선전원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o 근로자의 날(5.1절) 130주년 계기 사설 게재(노동신문/전체 근로자들이여! 영웅적 투쟁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정면돌파전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 o 농촌 각지, 벼모판 씨뿌리기 결속(중앙통신·중앙방송)
- o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차례로 겹놓인 원시동굴 유적 새로 발굴 및 '국보유적' 등록(중앙통신)

대남
- o 통일부 '남북관계발전 시행 계획' 비난(우리민족끼리)
-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765명·사망 247명 등 관련내용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특이동향 없음.

5.2.(토)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준공식 참석 및 준공테이프 커팅(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사(중앙통신·중앙방송)
- o 216사단 건설자들, 삼지연시에 살림집 및 공공건물 골조공사 결속(중앙방송)
- o 청진제강소, 산화배소구단광 수직로 보수 마감단계(중앙통신)
- o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기간 전국적으로 수백km의 도로 기술 개건(중앙통신)
- o 청진임상연구소, 줄기세포 적용 치료 사업 주력(중앙방송)
- o 황해남도 재령군 청년동맹위, '혁명전통 사상교양사업' 진행(중앙방송)

대남
-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774명·사망 248명 등 관련내용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미국에서 코로나19 106만 9,826명 감염·6만여명 사망 등 세계 현황 보도(중앙방송)
- o 일본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비난(중앙통신/논평, 그 무엇으로써도 복수주의야망을 가리울 수 없다)

5.3.(일)

대내
- o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 건설 진척도 보도(중앙방송·노동신문)
- o 대성산샘물공장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 이용 사업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o 건물외장바르기·위생시설보수 등 봄철위생월간사업 전개(중앙통신)

대남
- o MBC 인용,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간략 보도(중앙통신)

대외
- o 특이동향 없음.

5.4.(월)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o 김재룡 내각 총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함경북도 여러 부문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 o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창건(1936.5.5.), '조국해방 공헌' 찬양(중앙통신)
- o 김영남 석탄공업성 부상, 김정은 위원장의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관련 반향(중앙통신)
- o 평양건축대학, 새 교수방법 30여건 창조(중앙방송)

대남
-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793명 등 간략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 12만 4,054명·1,222명 사망 등 세계 현황 보도(중앙방송)
- o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김정은 '당위원장 추대' 4주년 축하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5.5.(화)

대내
- o 사회주의 승리 위한 '자력갱생' 강조(노동신문/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하는데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
- o 남포시, 룡강군·천리마구역 고창리지구에 유용동물보호구역 조성 및 꿩·노루 방사(중앙통신)
- o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고구려-왜(일본) 관계' 출판(중앙통신)

대남
-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801명·사망 252명 등 관련내용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미일 공군 공동훈련 비난(중앙통신/논평, 전범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경계하여야 한다)
- o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115만 8,041명 등 세계 현황 보도(중앙방송)

5.6.(수)

대내
- o '당 제7차대회(2016년 5월)'의 역사적 의의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 o 순천린비료공장 준공 관련 '사회주의 강국건설 돌격로 개척' 강조(노동신문)

대남
-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 o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국전쟁승리 75주년' 기념메달·증서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5.7.(목)

대내
- o 인민경제 선행부문 생산 정상화 강조(노동신문/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나가자)
- o 순천린비료공장 완공은 '군민대단결의 결실' 강조(중앙통신/군민대단결은 조선혁명의 전통)
- o 삼지연시 건설 3단계 공사 성과 확대(중앙통신)
- o 평양종합병원 연내 완공 강조 및 건설 지원 독려(중앙통신)
- o 남포시양묘장 새로 건설(중앙통신)
- o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경공업공장, 신제품 개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o 강원도 농촌, 지난 해 대비 토끼 24만여 마리 사육 성과 보도(중앙방송)
- o 각 교육단위,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전개(중앙통신)

대남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806명·사망 255명 등 관련내용 보도(중앙방송)

대외 o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 16만 5,929명·사망 1,537명 등 세계 현황 보도(중앙방송)

5.8.(금)

대내 o 보건성, 코로나19 방역 체계 구축·물자 비축 및 치료약 개발 사업 추진(중앙통신·중앙방송)
o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철강재 생산능력 향상 위한 공사 추진(중앙통신)
o 평양화초연구소, 꽃 품종 10종 국가 원림식물품종으로 등록 및 확대 도입(중앙통신)

대남 o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5.7.), 우리 군의 합동군사연습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o CBS 인용, 경상북도에 '야생진드기 전염병 환자' 발생 소식 보도(중앙통신)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810명·사망 256명 등 관련내용 보도(중앙방송)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사업 성과 축하 구두친서'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o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울화 가족, 김정은 '당위원장 추대' 4주년 축하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o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122만 8,603명·사망 7만 1,000명 사망 등 세계 현황 보도(중앙방송)

5.9.(토)

대내 o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4주년, 업적 찬양(노동신문/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o 김재룡 내각 총리, 안석간석지건설장 등 현지 요해(중앙통신)
o 강원도 등 각지에서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추진(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절' 75주년 축전(중앙방송)
o 리선권 외무상,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승절' 75주년 축전(중앙통신)
o 당 중앙위원회, 러시아 연방 집권 및 주요 정당들에 축전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o 북-태국 수교 45주년 기념 친선 강조(노동신문/날로 발전하는 친선협조관계)

5.10.(일)

대내 o 김재룡 내각 총리, 황해남도 물길 준공 정형 등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새 시대 상징'으로 명명한 '릉라인민유원지·은하과학자거리·옥류아동병원·애국풀·무지개호·려명거리·강원도정신' 등 명칭 의미 소개 및 칭송(중앙방송)
o 함경남도, 단청 보색 등 '민족유산보호사업' 주력(중앙방송)
o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첫 모내기 시작(중앙통신)
o 황해북도, 옥수수(강냉이)심기 결속(중앙방송·노동신문)

대남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840명으로 증가' 간략 보도(중앙방송)

대외 o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친서' 화답(중앙통신·중앙방송)

5.11.(월)

대내 o 알곡생산 목표 수행 위한 모내기 독려(노동신문/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어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함경남도 여러 단위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공사 추진(중앙방송)
o 동대원구역 2중영예의 붉은기 문신소학교, 교사 신축공사 진행(중앙방송)
o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상사진문헌 등 새 발굴자료 110여점 전시(중앙방송)

대남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874명 등 현황 보도(중앙방송)

대외 o 특이동향 없음.

5.12.(화)

대내 o 국토환경보호성, 이용 가치가 큰 50여개 수종으로 산림자원 적극 조성(5.12, 중앙통신)
o 강원도·라선시·남포시 등, 모체양묘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중앙통신)
o 경제적 자립 강조(노동신문/경제적 자립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중요한 담보)

대남 o 8월 '림팩' 합동군사훈련 참가 결정 등 우리 군 군사훈련 비난(우리민족끼리)

대외 o 미 공군기지 이설 관련 일본 비난(중앙통신/논평, 가련한 속국 일본의 미래는 암담하다)

5.13.(수)

대내 o 김정은 위원장의 '경상유치원 방문, 녹지조성 지시' 등 '친어버이 사랑' 찬양(중앙통신)
o 군 리영식소속부대, 단천발전소 기본 수로터널(물길굴) 공사 성과적 결속(중앙방송)
o 황해도, 기본면적 강냉이심기 성과적 결속 및 평안남도 대동군, 유기질복합비료공장 건설(중앙방송)
o 국제친선전람관, 시진핑 주석·러시아 대통령 선물 등 수백 점 보충전시(중앙방송)

대남 o '6.25 70주년 기념사업' 비난(우리민족끼리)
o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인용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 o 영국 단체들,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4주년 축하' 관련 공동성명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5.14.(목)

대내 o '군민대단결로 정면돌파전 승리' 강조(노동신문·중앙방송/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o '화성-12형' 발사 3주년, 김정은 업적 선전(노동신문)
o 봄철약초재배월간, 약초·약나무 심기 등 약초조성사업 전개(중앙통신)
o 자강도, 흥주청년5호발전소 건설 주력(중앙방송)

대남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0,962명·사망 259명 등 현황 보도(중앙방송)

대외 o 일본 해군자위대의 연이은 중동 파견 비난(중앙통신/논평, 면사포속의 흉상)
o 시진핑 주석, 산서성 여러 곳 방문 보도(중앙방송)

o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전파방지 위해 '봉쇄조치 서서히 안정적으로 해제' 주장 보도(중앙방송)

o 기타동향

- 김재룡 내각 총리·리선권 외무상, 태국 수상·외무상에게 북-태국 수교 45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태국 수상, 김재룡 내각 총리에게 북-태국 수교 45주년 축전(중앙방송)
- 김재룡 내각 총리, 前 라오스 수상 사망 조전 발송(중앙방송)
- 리길성 외무성 부상·박경일 북-라오스친선협회 부위원장 등, 前 라오스 수상 사망 관련 주북 라오스 대사관 조의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5.15.(금)

대내 o 평양종합병원 건설 자재·설비 보장 촉구(노동신문)

o 각지 농촌, 벼 모내기 시작(중앙통신)

o 인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기여하는 대규모 남새연구생산기지(중앙통신)

대남 o 통일연구원 발간 '북한인권백서' 관련 비난(우리민족끼리)

대외 o 일본 우익의 조선대학교 겨냥 시위 비난(중앙통신/논평, 노골적인 민족배타 행위는 용납못할 국가범죄이다)

5.16.(토)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집권 8년 '업적·영도력' 찬양 및 '수령의 혁명사상·사회주의 이념' 강조(노동신문/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주체혁명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시는 탁월한 영도자이시다)

o '속도전청년돌격대' 조직 45주년, '성과 및 노고' 치하(중앙방송)

o 각지 농촌, 옥수수(강냉이) 심기 기본적으로 결속(중앙통신)

o 새 풀판 수만 정보 조성(중앙통신·중앙방송)

o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각지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중앙통신·중앙방송)

o 황해북도 민족유산보호국, 봄철 민족유산애호월간 즈음 정방산 역사유적 대보수 자재 해결 등 민족유산 보호사업 진행(중앙방송)

대남 o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11,018명) 보도(중앙방송)

대외 o 특이동향 없음.

5.17.(일)

대내 o '정면돌파전의 승리는 확정적' 강조(노동신문/정면돌파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신념)

o 강원도, 군민발전소 건설 주력(중앙방송)

o 문학예술출판사·금성청년출판사·공업출판사 등, 학습열풍 고조를 위한 도서 수백 종 새로 출판(중앙방송)

대남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1,037명·사망 262명 보도(중앙방송)

대외 o 미국 등 코로나19 세계현황 보도(중앙방송)

5.18.(월)

대내
- o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 강조(노동신문/당 정책 결사관철의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 o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고려약공장 건설 중(중앙방송)
- o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속담사전' 등 사전 여러 종 전자화 진행(중앙방송)

대남
- o 5.18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성토문 발표(우리민족끼리)

대외
- o 독일 사례 언급, 일본 과거사문제 관련 비난(중앙통신/논평, 야만국은 언제 가도 정상국가로 될 수 없다)
- o 북-태국 수교 45주년 기념 인터넷 사진전시회 진행(중앙방송)

5.19.(화)

대내
- o 김재룡 내각 총리, 단천항 등 함경남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 요해(중앙방송·중앙통신)
- o '외래어·잡탕말'이 아닌 '민족어·평양문화어' 사용 등 건전한 언어생활 강조(노동신문)
- o 인포청년탄광·회안청년탄광 등 서부지구탄전, 석탄운반능력 개선사업 주력(중앙통신)
- o 기계공업성 산하단위들, 평양종합병원 건설용 설비·자재 생산성과 보도(중앙방송)
- o 평양시, 현대적인 양묘장 건설 주력(중앙방송·노동신문)
- o 외국문정보기술보급사, 어린이·청소년용 지능개발·상식도서 '주산문제집 1·2·3권 및 기묘한 수의 세계 등' 발행(중앙방송)
- o 함주군, 휴대용 컴퓨터 및 교육설비 전달 등 교육부문 후원사업 전개(중앙방송)

대남
-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1,065명·사망 263명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소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 제하 담화 발표(중앙통신)
- o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면적인 학교수업 재개 위한 방역기술방안 발표 소개(중앙방송)
- o 기타동향
  - 리선권 외무상, 코트디부아리 신임 외무상에게 축전(중앙통신)

5.20.(수)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자강도 동신군 청담리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o 국산화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사업',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 강조(노동신문/국산화에 참된 애국이 있다)
- o 강원도, 새 땅 찾기 운동을 통해 경작지(부침땅) 수천 정보 면적 확보(중앙방송)
- o 각지 농장, 올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준비사업 전개(중앙통신)

대남
- o 우리 군 기강문제 비난(우리민족끼리)
-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1,078명으로 증가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항공자위대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 보유계획 등 일본 군사력 증강 비난(중앙통신/논평,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전범국)
- o 미국 등 코로나19 세계현황 보도(중앙방송)
-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카메룬 대통령에게 국경일 축전 발송(중앙통신)

5.21.(목)

대내
- o 긍정적 모범 사례 따라배우기를 통한 긍정감화교양 사업 강조(노동신문/긍정감화교양은 참된 혁명가들을 키우는 중요한 사업)
- o 밀 수확 증대 독려(노동신문/밀농사에 힘을 넣어 포전마다에서 다수확을 안아올 열의)
- o 평양종합병원 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중앙통신)
- o 평양시, 약초자원 보호 주력(중앙방송)
- o 대학생들, 과학탐구활동으로 성과 이룩(중앙통신)
- o 고등교육부문 기술인재 육성 성과, 10년간 대학생과학탐구상 수상자 1만 여명 배출(중앙방송)

대남
-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 o 특이동향 없음.

5.22.(금)

대내
- o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수분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 강화 강조(노동신문/청년들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 o 당 중앙위원회,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완공 건설자들에게 감사문 전달(중앙방송)
- o 평안남도, 현대적인 '평안남도 양묘장' 건설(중앙방송·노동신문)
- o 농작물 생육과 수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각종 비료·영양제 활용 및 '다수확 결실' 소개(중앙통신)
- o 삼일포특산물공장 등 각지 식료공장에서 산나물 가공 및 공급 홍보와 곰취·참취·쑥·냉이·더덕 등 산나물 효과 소개(중앙통신)
- o 지난해 동기 대비 토끼·염소·양 마리 수 각각 150%·110%·105% 이상 증가 등 초식가축 사육 성과 확대'(중앙방송)
- o 조선노동당출판사, '역사의 정의'·'영원한 태양의 미소' 등 '위대성 교양 도서' 출판(중앙통신)
- o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생물다양성 보호 적극 대처와 생물다양성협약체약국의 의무이행 강조(노동신문/인류의 공동과제-생물다양성의 보호)

대남
-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1,122명·사망 264명 보도(중앙방송)

대외
- o '총련' 결성 65주년 관련 '총련의 력사는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사상과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 강조(중앙통신/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공민단체)
- o 기타동향
  - 김재룡 내각 총리, 레소토 신임 수상에게 축전(중앙방송·중앙통신)

5.23.(토)

대내
-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을 명절·휴식일로 지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중앙통신)
- o 김재룡 내각 총리, 남포항 등 여러 부문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 o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완공은 '충성의 노력적 선물,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o 속도전청년돌격대, 단천6호발전소 댐(언제)공사 총 공사량 85% 수행(중앙방송)
- o 중앙동물원에 반달곰·소관앵무새 등 진귀한 동물들 계속 증가(중앙방송·중앙통신)

대남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1,142명으로 증가 보도(중앙방송)

대외 o 미국 등 코로나19 세계현황 보도(중앙방송·노동신문)
o 기타동향
– 김재룡 내각 총리, 파키스탄 수상에게 여객기 추락사고 인명피해 관련 위문전문(중앙방송)

5.24.(일)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주재(중앙통신·중앙방송)
o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명령 제0015호,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하여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o 김일성 저작('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발표 30주년 계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노동신문/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
o 성, 중앙기관들, 황해남도 농업부문 적극 지원(중앙통신·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기타동향
– 러시아 정당·단체 지도자들과 인사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 1주년' 계기 축전 및 축하편지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5.25.(월)

대내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황해남도물길 등 황해남도 여러 부문 현지 요해(중앙방송·중앙통신)
o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4.12) 채택 '재자원화법' 해설(중앙통신)
o '내적잠재력 총 발동' 독려 및 자력갱생·자급자족 강조(노동신문/내적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건설 대진군을 다그치자)
o 전승혁명사적관, 최근 '김일성 전승업적 사적자료' 새로 발굴·고증(중앙방송·노동신문)
o 각지 농업부문, 옥수수(강냉이) 심기 성과적 종료 및 모내기 역량 총집중(중앙방송)

대남 o KBS 인용, 경상북도·충청남도에서 야생진드기에 의한 전염병으로 2명 사망 보도(중앙통신)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1,190명으로 증가 보도(중앙방송)

대외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앞으로 결성 65주년 축전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o '총련' 결성 65주년 계기 '정다운 한 식솔·미더운 해외혁명동지' 축하·격려(중앙통신·노동신문/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총련)

5.26.(화)

대내 o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사상문화진지' 구축 강조(노동신문/사상문화진지를 백방으로 다지는 사업의 중요성)
o 인민경제 전역의 연대적 혁신 촉구(노동신문/정면돌파전은 련대적 혁신을 요구한다)
o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경기-20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도 밑에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중앙통신)
o 교원부문, 교원 자질향상 위한 원격재교육 실시(중앙통신)
o 각지 공장·기업소 등, 농기계 수리 지원(중앙통신)

o 임업부문,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순환식 채벌구역에 수천만 그루 식수(중앙통신)
o 강원도 인민병원, 김정은 '위대성 교양'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중앙방송)

대남 o 국내 코로나19 확진 11,206명으로 증가 보도(중앙방송)

대외 o 미국 등 코로나19 세계현황 보도(중앙방송·노동신문)

5.27.(수)

대내
o 수산부문, 올해 새끼 연어와 가자미 수백만 마리 방류(중앙통신·중앙방송)
o 김정은 위원장, 평안북도 신도군 주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o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새 형의 궤도전차' 운행 예정(중앙통신)
o 전력공업부문, 모내기 보장 전력 공급 주력(중앙방송)
o '당의 인민존중·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정면돌파전에 임할 것'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전이다)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미 국무성 부차관보 방위비 분담금 발언 비난(우리민족끼리)

5.28.(목)

대내
o 강원도혁명사적관, 김정은 위원장 혁명사적 자료 보충 전시(중앙방송·노동신문)
o 신의주시 송환지구·철산군 명암리지구에 시범적 유용동물보호구 수백 정보 조성(중앙방송)
o 평양시,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증가(중앙방송)
o 평안북도·황해남도 농촌 등, 모내기 주력(중앙방송)

대남 o 이태원클럽 사례 등 국내 코로나19 확진 수 '또 다시 증가'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 o 기타동향
- 김정은 위원장,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국경절 축전 발송(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에티오피아 대통령에게 국경절 축전 발송(중앙통신)

5.29.(금)

대내
o 농근맹, 농촌세대들에서 살림집 주변에 많은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 주력(중앙통신)
o 2.16사단·6.18건설여단 함경남도 연대 등, 삼지연시 꾸리기 공사 주력(중앙방송)
o 문학예술출판사·금성청년출판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 하는 도서' 출판(중앙통신)
o 황해남도, 유용동물보호구 꾸리기 사업 마감단계(중앙방송)

대남 o 부천 상품유통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등 코로나19 79명 추가 발생, 확진 11,344명으로 급격히 증가 보도(중앙방송)

대외
o 일본 '외교청서' 공개 관련 비난(우리민족끼리)
o 미국 등 코로나19 세계현황 보도(중앙방송·노동신문)

o 기타동향
– ‘총련’,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성 65주년 계기 축하 편지 전달(중앙통신)

5.30.(토)

대내 o 김정일 저작(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표 30주년 ‘우리 식 사회주의’ 강조(노동신문/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의 근본 원천)
o 김정은 저작(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일꾼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 발표 5주년 ‘일꾼들의 멸사복무 정신’ 강조(·노동신문/일꾼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정면 돌파전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
o 박봉주 당 부위원장, 청천강-평남 관개 물길 건설장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대학들, 교육내용의 실용화·종합화·현대화 실현 사업 전개(중앙통신)
o 금연연구보급소, 금연 관련 상담·연구·제품개발 등 진행(중앙통신)
o 전체 모내기 실적, 60% 계선 진행(중앙방송)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문답,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지지입장 발표(중앙통신)

5.31.(일)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o 김재룡 내각 총리, 황해북도 미루벌 물길 등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o 유네스코민족위원회, 백두산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록 사업 추진(중앙통신)

대남 o 특이동향 없음.

대외 o 특이동향 없음.

이달의 약사

- **05.01.** 근로자의 날(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 파업 기념)
- **05.03.** 「조국통일 3대원칙」 제의일(1972년 5월 3일, 김일성 제의)
- **05.05.** 「조국광복회」 결성일(1936년 5월 5일, 김일성 조직)
- **05.06.**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2016년 5월 6일 ~ 9일)
- **05.07.**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1992년)
- **05.09.**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일(2016년)
- **05.10.**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1948년)
- **05.11.** 철도절(1953년 3월 18일 제정)
- **05.13.**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결성일(1961년 5월 13일 결성)
- **05.14.** '화성-12형' 발사(2017년)
- **05.15.** 지질 탐사절(1970년 2월 3일 제정)
- **05.16.** 남북 차관급 회담 개최(2005년 5월 16일 ~ 19일, 개성)
- **05.17.** 남북 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2007년)
- **05.18.** 「5.18 광주 민주화운동」(광주 인민봉기) 기념일(1980년 발생)
- **05.20.** 「조선 학생위원회」 결성일(1960년)
- **05.21.** 건설자절(1971년 4월 30일, 제정)
- **05.21.** 북한, '북극성-2형' 발사(2017년)
- **05.23.**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일(1939년)
- **05.24.** 「조국통일 5개 방침」 제시일(1990년)
- **05.24.**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1994년)
- **05.24.** 5.24 조치 발표(2010년)
- **05.24.**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년)
- **05.26.**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2018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05.25.**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결성일(1955년)
- **05.25.**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정(2007년)
- **05.25.** 북한, 제2차 핵실험 실시(2009년)
- **05.28.** 「남북 해운합의서」 채택(2004년)

- **05.29.** 평양 교예단 서울 공연(2000년 5월 29일 ~ 6월 11일)
- **05.29.**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2007년 5월 29일 ~ 6월 1일, 서울)
- **05.30.** 「조선 종교인협의회」 결성일(1989년)
- **05.3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사업 공식 종결 선포(2006년)